

지역 **메아리**

김제시 창업관련 사전교육 가져

김제시(이후천 시장권한대행)는 농업인의 자가 생산 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식품 창업관련 시범사업을 2018년 7개분야 8개소에 대하여 5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에 대한 사전교육을 2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가졌다.

올해에는 농촌지원 활용기술시범사업, 지역특화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사업,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보급사업 등 추진되며 지난달 1월 31일 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 받고 현지 심사 과정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보조사업 추진 요령과 시범사업 추진 방향,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설명과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회의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경준, 이하 협의체) 및 복지기동대(이하 기동대)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기회의의 안건으로는 복지기동대 활성화 추진방안,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임원 선임 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새롭게 시작할 특화사업은 '내생애 최고의 날' Happy-Day 사업으로 독거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 스스로의 소중함과 최고의 행복을 제공해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생을 열심히 사셨고 합당하고 의로운 일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담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태극기 달기 캠페인

김제시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대장 최경국) 대원과 면사무소 직원 9명은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국민단결을 제고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지난 26일 남포리 일원 주요도로 1.5km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전 가정 태극기 달기'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복지기동대는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는 데 뜻을 모아 이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남포리 도로변 1.5km 일원에 태극기를 게양하였고, 그 후 가두 홍보 캠페인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완주와일드푸드축제, 5년 연속 영예... 주민 중심 축제로 차별화 호평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2018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5년 연속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사에서 완주군은 주민참여형 축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전국 1000여개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관

광 ▲경제 ▲예술·전통 등 4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이번 콘텐츠 대상 수상뿐만 아니라 4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외부상인이 없는 순수 주민참여형 축제로 로컬푸드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주인공인 주민(마을)공동체 중심의 콘텐츠로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타 축제장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야생의 딱거리와 볼거리, 볼거리로 오감을 자극하는 축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오는 10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종자 수출 활성화 위해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자리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는 지난 26일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위해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종자 수출이 활성화되고, 박람회가 종자산업을 상징하는 종합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직위원들에 대한 위촉식도 가졌다.

특히 박람회 조직위원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한국종자협회, 언론사,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국제종자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 협력 활성화, 국내외 기업 유치, 대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김제시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계기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종자수출의 교두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제종자박람회 주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자리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는 지난 26일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위해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기관으로서 행정력을 집중해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지난 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전시포 운영, 주제관과 산업관 조성, 학술대회 등을 통해 종

자기업, 해외바이어, 종자학계, 농민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일반시민들까지 방문하여 종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종자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6일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 부의(附議)안건 4건중 3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제시청에서 열린 심의위원회 안건으로는 1872년 전라도 관찰사 이호준과 김제군수 김선근이 벽골제 인근 상습침수지역에 다리를 놓아 민민을 해결했다는 향토사적 기록이 적혀

있는 김제길교비와, 여덟효자에 얽힌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신종동의 팔효사, 그리고 1715년 김제 벽골제 둑이 무너질 당시 사재를 모두 털어 수리했던 일화로 유명한 호남서예계의 거목 송재 송일중 묘역, 과거 만경지역에서 수많은 기부와 선행을 통해 존경받았던 조동희 여사 고택이 심의되었다.

특히 현지조사를 수행했던 나중우 부위원장은 김교비문을 탁본하여 정밀하게 해석해본 결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민원해결에 대한 내용이 기존의 학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에 漢學者등과 심층논의 할 필요성을 제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육열에 불을 댕겨야 할 것”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제를 ‘교육의 1번지’ 로”

전북대 제15대, 16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우리 아이들이 떠나는 교육으로는 김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교육에 대한 여론을 경청하는 ‘교육희망찾기 대장정’ 일환으로 이날 김제를 찾아 “김제 인구는 1960년대 26만명에서 최근에는 8만7,0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일자리와 복지, 문화 등이 열악한 이유도 있지만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도 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또 “김제를 ‘교육의 1번지’ 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학력과 일반고 학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기초학력 미달로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등 교육열에 불을 댕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총장협의회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수업법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5대, 16대 전북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열정과 헌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국 40위권 대학을 10위 내외로 발전시켜 위상을 높였고, 특히 국립대에서 부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전북의 자긍심을 높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스테마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완주군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해 무료관람과 지역아동센터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8일부터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는 완주군 13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에게 스테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발표체험을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월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28일에는 삼례읍과 이서면에서 70여명의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290-384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하고, 문화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완주군에서는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은 지난 2015년 10월 개관해 술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담은 5만500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별 테마형 전시공간 운영과 발표체험·교육·시음 등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발표관람 체험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전통주 빚기·하우스 맥주만들기·커피 일만들기 체험 운영으로 기관 및 친목단체 등에 행사장소로도 운영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